

가정의 달 맞아 행사 풍성

“효(孝), 이해하며 나누는 것”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빼곡한 5월이다.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 여기저기 신경 쓰고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작 중요한 가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가정의 달’인 5월, 부모님과 자녀의 손을 잡고 가까운 사람이나 불교계 복지관을 찾아가 보자. 가족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대표 성운)이 운영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02-385-1315)**은 5월 7일 ‘제 38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 초청 사랑근잔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에서 ‘효도잔치’가 열린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어르신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10-15일 ‘사랑의 편지 쓰기교실’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무료진료도 마련된다. 16일 열린(사회)이사회 고령성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무료진료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진료소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가정의학과·부인과·치과 진료가 실시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5월 20일에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서울숲 공원으로 야회학을 떠난다. 이날 야회학은 삼림욕, 산책, 보물찾기 등으로 채워진다. 27일에는 수급자어르신들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을 위해 영화 관람도 준비했다. MBC 프로덕션이 지원하는 ‘좋은 영화 무료 감상회’는 5월 18일 오후 3시 은평노인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진노인복지관(관장 화평·02-466-6242)은 7일 지역의 무의탁어르신을 위한 ‘칠·팔순잔치’를 개최한다. 8일에는 어버이날 기념식 및 운동회를 개최한다. 8일 오전 서울 구의동 동의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7회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은 어버이날 기념식과 어르신 운동회가 진행된다.

5월 13일에는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선다. 광진노인복지관이 준비한 어르신 취업공개강좌가 19일 오전 9시 30분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02-742-9500)은 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후원한 초코파이

를 논산훈련소에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7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개최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10-11일에는 강원도 월정사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40여 명이 템플스테이를 떠난다. 10-12일 성곡관대 노년극장 앞에서 어르신들이 바자회 ‘환경과 이웃을 위한 페이퍼’를 열린다. 성곡관대 사회 복지학과와 연계해 진행되는 바자회는 의류·생활용품 판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비 모금, 어르신과 함께하는 손수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분당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02-817-8052-3)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7-8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 분당종합복지관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라면 모금을 진행 중이며 12일 오후 전담식을 갖는다. 18일에는 저소득 가정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행복 나눔 아를렛’을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에서 연다.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최은오·

02-929-7950)에서는 제38회 어버이날 행사를 8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효, 주고 받는 것보다 이해하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어버이 효사랑 기념행사 △문화예술제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공연과 어린이·대학생원단 공연, 농구공예기, 하모니카·한국무용·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또 부대에서는 막대풍선·습사탕을 나누기, 페이스페인팅 그리기와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훈 만들기’도 진행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탐구하고 싶다면 거제지역에 관심을 가져 봐도 좋다.

사단법인 파라미터청소년협회 거제지회(회장 서명희·055-632-0366)는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법정 스님의 <무소유> 토크콘서트 개최한다. 파라미터 거제지회는 <무소유> 200권을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거제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19일 저녁 7시 거제도서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열심히 토론한 시민에게는 법정 스님의 저서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news.com

“장기기증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안내소 개소식



4월 28일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식에서 홍보대사 텔런트 송선미(왼쪽 두번째)씨와 김혜옥씨, 이 사장 일행 스님, 서강대 박광서 교수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막상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이를 위한 안내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이하 생명나눔)가 4월 28일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를 개소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지하상가 9호점에 위치한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는 안국역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희망 안내 및 홍보 △상담 및 채혈 △현장 등록(장기·조혈모세포 기증) 등의 활동을 펼친다.

장기기증 희망안내소에는 간호사 1명과 자원 봉사자 2명이 상시 배치된다. 또 1년 365일 운영(오전 10시 30분-오후 7시30분)에 언제든지 장기기증 관련 상담과 채혈이 가능하

다. 장기기증 희망안내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제회)가 시행하는 2010년도 장기기증 및 이식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생명나눔에 1억원을 지원해 마련된 공간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인식부족으로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다. 희망안내소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나눔 정복자 사무처장은 “2009년 10월 기준으로 1만 2235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생명나눔운동 확산과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활성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 김혜옥·송선미씨, 서강대 박광서 교수, 안국역 박종찬 역장, 조원현 신부 등 70여 명이 참여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1994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 이식 등록기관으로 설립됐다.

불교의 저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생명나눔은 뇌사 시 장기·각막·조직 기증, 사후 시신 기증, 조혈모세포기증, 헬스판 성분 헌혈, 환자 치료비·수술비 지원 등 의료구조 및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2)720-7720

글=박선주·사진=박재원 기자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 자비 베풀 것

경남불교사회복지협 회장 성공 스님 취임

제3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성공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4월 26일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이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날 3대 회장에 취임한 성공 스님은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성공 스님은 “부처님 말씀에 동체대비라는 구절은 나와 남이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한 몸이기에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알고 자비를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 2대 회장 승숙 스님(보리수동산 원장)은 “불교사회복지계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사단법인 불교 사회복지 성안원, 아동 양육시설 보리수동산, 화방복지원 화방동산 등 경남지역 15개 법인과 기관이 불교복지 발전에 뜻을 모아 2005년 창립했다. 현재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는 창원원전대학을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간 협력증진,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세미나 개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생명존중의 불교정신에 입각해 ‘낙태’로 인한 사회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4월 28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지원센터에서 역할토론극 ‘야단법석, 낙태이야기’를 개최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 중인 ‘불법 임신중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태아생명권과 여성권리 △장애아 출산 후 여성의 삶 △저출산 문제와 낙태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남성’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 ‘가족’ ‘태아’ ‘종교인’ ‘정부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4월 28일 낙태 문제의 불교적 해결 모색을 위해 주최한 토론회 ‘야단법석, 낙태 이야기’에서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 등의 역할을 맡아 토론극을 펼쳤다. 이날 정부관계자 역할을 맡은 한 여성은 “현재 정부는 낙태하 등 사람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

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안 등을 제정하고 있다”며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성교육, 미혼모 차별 철폐 등 사회의식 함양과 제도개선이 진

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소장은 “이번 역할극은 낙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고, 넓은 시각에서 불교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생명존중의 종교인 불교는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무조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더 많은 피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는 7월 중 논문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 26일 발표한 ‘불법 임신중절 예방대책’은 위기임신 상담 콜센터 운영, 낙태 실시 병원 삼진아웃제 등이 골자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교육원이 제시한 강원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 성명서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강원교육과정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의 골자는 학습효과를 위해서 서구식 교육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승가교육법에 명시된 조계종지를 체득하여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중단의 기풍과 거리가 멀다. 또한 조계종 기본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교육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문제점을 밝힌다.

원전에 대한 훈고학적 교육방식은 원전 해독 능력과 향후 독자적 공부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다. 또한 한문교육은 대부분의 대승경전이 한문텍스트이며 불교만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이에 기반 하고 있으므로 한문교육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 소양이다.

전통 교과목의 교재를 모두 한글화한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각 기본교육기관의 장점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편(안)이다. 승가교육은 우리중단의 최대역점불사이자 교육원 수장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바뀌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불사가 아닌 교육백년대계이다. 바깥세상도 지양하는 일을 승가안에서 일선 소임자와 소통없이 진행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된다. 특히 역경불사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번역 능력자를 기르기 위해서도 원전 공부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 세속에서 한문 고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고전번역원’을 설립하고 국가적인 지원으로 번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번역자 양성을 위해서 한문 교육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승가 교육은 많은 것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의 교양 지식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원전의 깊은

내용을 반복된 숙지와 훈습을 통해 분명하게 의미를 체득하고 자기 수행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은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는 직업적 성직자는 만들 수 있어도 계정해 삼학이 갖춰진 수행자를 만들 수는 없다. 이론 추구에 따른 불교의 모습은 일본불교의 현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교이론 정립보다 행이 따르지 못하는 데 있다.

교육원이 제시한 교육과정은 거의 대부분 이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학인 양성 방법에 대해 다른 장점을 가진 전통강원에서까지 전통적인 교과과정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강요한다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물론 교육백년대계를 줄속으로 처리하는 세간의 잘못을 따를 뿐이다.

이에 오늘 공청회와 같이 소통없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개편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늘 공청회는 강원 교직자의 참여와 소통없이 교육원 일방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요식행사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차후 획일적인 전체 교과과정 개편이 아닌 강원 교과과정 개편(안)을 분리하여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육원의 일방적이고 몰아붙이기식 학사행정 추진은 반대하며,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와 공개적으로 함께 지혜와 원력을 모아 전체적 틀 속에서 현실에 기반을 둔 인을 도출해 낼 것을 요구한다.

불기 2554(2010)년 4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